

# 초등학교 1학년 7단원 국어 정답 및 해설

## ※ 국어영역 ※

### 정답

01	④	02	④	03	④	04	②	05	④
06	①	07	④	08	②	09	①	10	⑤
11	②	12	③	13	⑤	14	②	15	⑤
16	④	17	③	18	②	19	②	20	①
21	⑤	22	④	23	⑤	24	⑤	25	①

### 해설

1.  
④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 때는 그림에 나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,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.

2.  
④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을 때는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야 한다.

[오답풀이]  
알맞은 속도와 크기로 읽어야 한다. 또한 허리를 바르게 펴고 바른 자세로 읽어야 한다.

3.  
④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 때는 그림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.

4.  
② 그림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. 토끼와 다람쥐가 타고 있는 놀이 기구는 그네이다.

5.  
④ 그림과 가장 잘 어울리는 문장은 ‘동물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’이다.

[오답풀이]  
①, ⑤ 곰 친구와 고양이 친구는 미끄럼틀을 타고 있다.

② 쥐 친구와 돼지 친구는 사이좋게 시소를 타고 있다.  
③ 동물 친구들은 놀이공원이 아니라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.

6.  
① 그림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문장은 ‘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졌어요.’이다. 그림에서 수진이가 얼음 위에서 넘어진 것을 볼 수 있다.

7.  
④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 때에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, 인물의 표정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. 수진이가 길에서 미끄러지며 수진이와 민혁이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.

8.  
② 넘어진 수진이를 보고 민혁이가 해 줄 말로 알맞은 것은 ‘괜찮아?’이다.

[오답풀이]  
① 만나거나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다.  
③ 반가운 마음을 전할 때 하는 인사말이다.  
④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 하는 인사말이다.  
⑤ 축하하는 마음을 전할 때 하는 인사말이다.

9.  
① 나그네(누가)가 땀을 흘리며 길을 걷고 있는 것(무엇을)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나그네는 ‘길을 걷고 있다’는 것이 적절하다.

10.  
⑤ 나그네가 땀을 흘리며 모자와 옷을 들고 있는 것을 통해 해가 뜨거워 나그네가 옷을 벗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가장 잘 어울리는 문장은 ‘해가 뜨거워 나그네는 옷을 벗었습니다’이다.

[오답풀이]  
① 해가 구름에 가려진 것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없다.  
② 해가 떠 있으므로 밤이 되었다는 문장은 알맞지 않다.  
③ 달은 그림에서 찾아볼 수 없다.  
④ 구름이 나그네를 시원하게 해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.

11.  
 ㉔ 그림은 해와 구름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. 해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고, 구름의 표정이 못마땅한 것으로 보아 해가 먼저 나그네의 옷을 벗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12.  
 ㉔ 그림 ㉔, ㉕에서 개미가 쥐가 떨어트린 사과에 맞아 다칠 뻔했음을 알 수 있다.

13.  
 ㉔ 그림 ㉔은 쥐가 사과를 먹으려고 하다가 사과에 붙어 있는 개미를 발견한 모습이다. 따라서 그림 ㉔에 가장 알맞은 문장은 ‘쥐는 사과를 먹으려고 했습니다’이다.

14.  
 ㉔ 쥐는 개미를 다치게 해서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. 따라서 쥐가 느꼈을 마음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‘미안한 마음’이다.

15.  
 ㉔ 그림 ㉔은 쥐와 개미가 사과를 나누어 먹고 있는 모습이다. 따라서 가장 잘 어울리는 문장은 ‘개미와 쥐는 사과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습니다.’이다.

16.  
 ㉔ ‘귀뚜라미와 나와 / 잔디밭에서 이야기했다’는 부분에서 귀뚜라미와 내가 이야기를 했음을 알 수 있다.

17.  
 ㉔ ‘귀뚜라미와 나와 / 잔디밭에서 이야기했다’는 부분에서 귀뚜라미와 내가 이야기한 장소가 ‘잔디밭’임을 알 수 있다.

18.  
 ㉔ ‘아무에게도 아껴주지 말고 / 우리 둘만 알자고 약속했다.’는 것은 귀뚜라미와 내가 아무도 몰래 비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므로, 가장 어울리는 낱말은 ‘비밀’이다.

19.  
 ㉔ 귀뚜라미 우는 소리는 귀뚜라미와 내가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므로, 귀뚜라미가 우는 모습이 떠올라 속상하였다는 생각은 알맞지 않다.

20.  
 ㉔ 동생과 내가 엄마 앞에서 다툼 날 밤에 이야기했다고 했으므로,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‘다투지

말고 / 사이좋게 지내자고 약속했다’이다.

21.  
 ㉔ 농부가 어두운 표정을 지은 것은 방 안에서 누군가 농부의 말을 따라했기 때문이다.

22.  
 ㉔ 농부가 “어휴 추워, 날씨가 무척 춥군.”이라고 하자 도깨비는 “어휴 추워, 날씨가 무척 춥군.”이라고 하면서 농부의 말을 흉내 내었다.

23.  
 ㉔ 농부는 방에 들어와서 “어휴 추워, 날씨가 무척 춥군.”이라고 혼잣말을 하였다.

24.  
 ㉔ 무서워서 떨고 있는 모습이므로, 휘적휘적은 어울리지 않는다.

[오답풀이]

㉔ ①, ②, ③, ④ 덜덜, 부들부들, 파들파들, 오들오들은 무서워서 떠는 모습으로 알맞다.

25.  
 ㉔ 도깨비가 농부의 말을 따라하면서 ‘키득키득’ 웃은 것으로 보아 ‘재밌는 마음’이 들었음을 알 수 있다.